



고흥군이 예술의 섬 연흥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연흥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 제공〉

‘예술의 섬’ 고흥 연흥도 ‘스마트 섬’

고흥군은 예술의 섬 연흥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 스마트 연흥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 연흥도 조성 사업은 첨단 ICT를 활용해 농어촌 지역이 가진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경제 자립형 마을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브이투씨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가격 협상 등 계약 체결을 마쳤다.

고흥군은 국비 6억원 등 13억원을 투입해 금산면 연흥도에 ‘섬마을 뮤비컬처 플랫폼’과 ‘고흥형 에듀스포테인먼트’, ‘행복한 연흥로컬푸드’, ‘ICT 기반

13억 들여 정보통신기술 도입...경제 자립형 마을 구축
CG로 보는 고흥의 사계 ‘섬마을 뮤비컬처 플랫폼’
가상현실로 바닷속 탐험 ‘에듀스포테인먼트’ 서비스

스마트 마을방송서비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형 에듀스포테인먼트센터는 2층 규모로 로컬푸드 직판장, 가상현실(VR) 체험시설, 관광안내소, 뮤비컬처 플랫폼, 휴게소가 들어선다.

섬마을 뮤비컬처 플랫폼은 고흥군의 사계(四季)

를 컴퓨터 그래픽(CG)으로 만들어 색다른 영상을 선보인다.

에듀스포테인먼트 서비스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잠수함을 타고 연흥도의 바닷속을 탐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연흥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연흥 로컬푸드 판매장이 들어서고 섬마을 55가구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흥도는 지난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주민 수익 창출 서비스를 개발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경제자립형 미래 마을의 표준 서비스 모델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연흥도를 주민이 행복한 섬, 사람이 찾아오는 활기찬 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미래교육재단 출범... ‘즐거운 교육도시’ 비전 선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6월 설립된 곡성미래교육재단이 정식 출범을 선언하고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15일 곡성미래교육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유근기 곡성군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과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진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곡성미래교육재단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됐다.

곡성미래교육재단 초대 이사장인 유근기 곡성군수는 비전 선포와 재단의 핵심 가치와 추진 방향을 직접 브리핑했다.

재단은 이날 출범식에서 120인 원탁토론, 815명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은 사람이 모이는 곡성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를 만들 것임을 선언하고, 핵심 가치로 ▲창의·

혁신 ▲연대와 협력 ▲함께 성장 ▲지역 활력 등을 내세웠다.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강화를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곡성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추진, 지난 6월 법인 등기를 마쳤다.

유근기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만이 희망이라 생각했다”며 “양질의 교육여건을 마련해 곡성사람이 성장함으로써 지역 회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팔영산 보고... 장어탕 먹고... 고흥 8경·9미 선정

고흥군은 새로운 대표 볼거리와 먹거리인 ‘고흥 8경(景)·9미(味)’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 4월부터 군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흥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음식을 선정했다.

8경에는 팔영산과 남열리 일출, 속섬, 나로도 편백숲, 금산 해안경관, 연흥도, 소록도, 중산 일몰 등이 선정됐다.

9미에는 녹동장어탕·구이, 고흥 계절 한정식, 고흥 한우구이, 바지락 회무침, 서대회무침·조림, 갯장어 사부사부·회, 전어회·구이, 나로도 삼치회·구이, 굴이 선정됐다.

고흥군은 관광 표지판과 홍보 조형물을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관광 상품을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 계절 한정식.



고흥 8경 중 하나인 속섬.

코로나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광양시, 23일까지 신청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확진자 운영점포 포함) 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84개 점포로 시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는 12월 23일까지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전후 1~2개월간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자료(매출 감소 확인)는 카드사 등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등으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대상업소 중 소상공인이 아닌 업소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소, 매출 감소 여부 등을 확인해 12월 24일 이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등 업소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시근로자 인건비와 영업장 임차료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지역경제과(061-797-335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파트 불법 거래 특별 단속 여수시, 전남 인력 배치

여수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과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편법 증여, 탈세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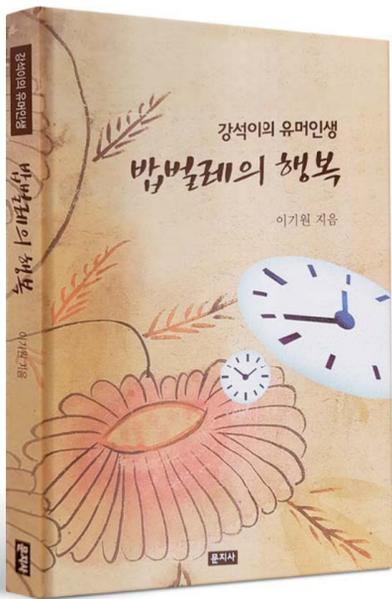
조사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1년이다. 여수 지역은 최근 들어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세무서와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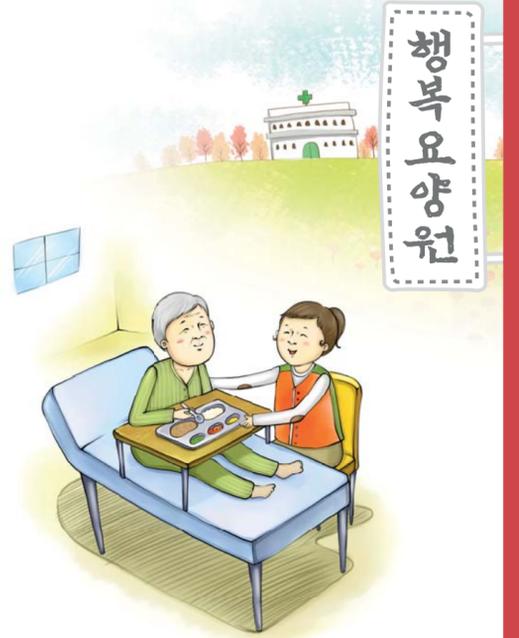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